珪長岩製의 公州石壯里의 双器中에서 實見한 바 있으며 石材의 性質上 打製石器 特히 Flake tool에 適當한 것이다。 그러나 淳昌의 이 打製石斧의 時代는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時代는 여기서 採集된 前記 磨製單双石斧의 그것 即 石器時代도 末期인 金屬使用期에 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비슷한 剝離法(Flaking)이 大邱地區의 頁岩製 有溝石斧에서도 보이고 있는 點에서 더욱 그러하며 그러한 剝離法이 磨製石器에 있어서도 第一次 整形에서 實施된 것을 말해 주고 있다。

別로 重要한 것이 못될지 모르나 將次의 더 많은 資料出現을 期待하는 마음에서 簡單히 紹介하여 두는 바이다。

百濟의 長劒과 馬具類의 新例

洪 思 俊

지난 六月에 連山面에 居住하는 金光世氏가 五月 下旬 同面 表井里 시루峰後 北山城에서 三〇〇m地點의 長霖으로 깎겨진 地下古墳에서 收獲하였다는 百濟時代의 武具 및 馬具 等屬을(扶餘博物館所藏) 持參하였다。 지금까지 未發見된 比較的 原形을 알아 볼 수 있는 遺物들임으로 紹介하여둔다。 그 種類는 아래와 같다。

1、馬鐸 一雙 靑銅製 完全
2、馬轡(말자갈) 一括 鐵製
3、鐙子 一雙 鐵製
4、鐵鏃 一括
5、鎗 二柄 鐵製
6、長劒 二 門銷附一
7、坩 一
8、단지 一 蓋付 蓋一

以上에서 特히 長劒과 馬鐸에 對해서 一言을 加하고자 한다。

長 劒 (1)

圖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날이 칼집에 넣어 있는데 劒柄上·下端을 銀마구리하였고 손(手)에 잡는 部分은 木心에 銀帶를 감았고 이 銀帶에는 橫으로 凹凸線이 있어서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칼집 末端에도 亦是 銀마구리를 하여 칼집은 칼날과 附着하여 腐敗하여서 그 原形을 識別할 수 없다。

馬鐸 一雙

靑銅製 馬鐸의 形態는 녹이 곱게 쓸어 있으나 原形을 完全히 保存되어 있다。 鐸內에는 鐵丸球가 들어 있어서 지금도 그 馬鐸소리를 들을 수 있다。

馬鐸外表에는 中央橫凸帶를 上下로 區分하여서 上部에는 簡略한 蓮花紋(陽刻)이 左右側에 各三瓣씩 裝飾되고 下部에는 鬼面이 亦是 左右側에 陽刻하였으되 口形을 馬鐸唇으로 代用하여져 있다。 勿論 馬頭에 달을 수 있도록 小孔이 馬鐸上部에 別途로 있다。 이 馬鐸은 壓延하여 만들지 않고 左右陽刻文을 合縫시킨듯 하다。 縱長 七cm 橫長 七cm

天安 三臺里 寺址의 磨崖佛立佛

李 殷 昌

天安郡 豊歲面 三臺里 寺址의 磨崖佛立像을 調査한 바 있어 이에 紹介한다。

1、寺址

豊歲面 所在地 (豊歲縣 古基①) 西便으로 泰鶴山이 있어 그 山 中腹에 傳稱 海仙庵②이라 하는 廢寺址가 있다。 이 寺址에는 法堂址로 推定되는 築臺와 高麗朝 所作으로 推定되는 石塔屋蓋石片이 殘在하고 一帶에는 瓦片이 散落되어 있다。 그리고 寺址에서 約 百m쯤 東北地點인